

“文정부 굳건한 지지세 확인” “여당 견제할 중도 통합 기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광주·전남 설 민심

설 명절 연휴,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지역구를 돌며 지역민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확인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27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민주당 지지세가 굳건해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검찰 등의 개혁을 성공시키고 한국당의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호남은 4년 전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는데, 그동안의 행보에 실망이 많아서인지 신당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을 단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겨울 이상 고온으로 올해 농사 작황과 병충해 피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질병에 취약한 축산 분야 방역 강

민주 “검찰개혁 등 높은 평가”
야권 “통합 서둘러 달라 요구”
“이상고은 농작물 피해 걱정”
“장기적 경기침체 불만 많아”

화에 힘 써달라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제3지대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에 기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한국당의 행태에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있으나,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미워져 민주당을 이야기하지만, 제3세력이 합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분열한 호남 정치권에 실망해 통합을 서둘러 달라라는 게 지역민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영일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행태를 질타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며 “예산을 잘 확보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제3세력에는 의구심이 많은데, 진영과 이

념 논리에서 벗어나 호남의 정치 발전을 이룰 세력에 기대와 관심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의원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 여당에 불만은 크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지역민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혀주고 제대로 된 제3지대의 출범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식의 부작용을 경험한 지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당보다 인물’에 초점을 두겠다는 반응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조국 사태와 검찰(인사) 문제로 실망이 크고 신뢰가 무너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예전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호남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중도 세력 통합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에 실망감이 여전히 있는데, 귀국 후 최근 행보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는 분이 많았다”며 “중도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오른쪽)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만난 안철수 ‘비대위’ 요구... “위원장 맡겠다”

안측 “孫 물러나라는 뜻”
안 “안되면 독자행보”
손 “지도체제 개편 이유 없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27일 손학규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안 전 의원은 특히 자신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손 대표와 4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내일 의원단(오전)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 고민해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무엇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머지 부분은 손 대표께 물어봐달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이 자리를 뜬 지 10분가량 지난 뒤에야 집무실에서 나온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이)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 대안으로 비대위 구성과 재선임 여부 등에 대한 전 당원 투표 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며

“안 전 의원이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이런 이야기를 한 뒤 지금 답을 주지 말고, 내일 의원들 모임 있을 때까지 고민해보고 답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도체제 개편과 비대위 구성을 이야기한 것은 손 대표는 물러나달라는 뜻”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도 “사퇴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다만 손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예전에 유승민계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 지도체제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 대표가) 물러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말에는 “글쎄요”라며 대답을 피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19일 귀국해 1주일 여가 지난 이날 손 대표를 찾았다. 비공개 대화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는 “귀국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을 다 치르고 오늘 당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양해를 구한 뒤 “손 대표님과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당을 어떻게 살

릴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 아주 크다.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대선이다, 서울시장선거다 하면서 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하지만 참신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가 서야 한다는 면에서 안 대표와 같은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의원의 만남이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먼저 도착해 안 전 의원을 기다렸고 안 전 의원이 방에 들어서자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한 뒤 “바쁘셨죠. 아버지 생신이었고 들었는데”라며 안부를 살피며 물었다. 또 “본가’인 바른미래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에겐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건넸고 발언 중에는 책상 위에 있는 안 전 의원의 손을 꼭 잡으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안 전 의원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손 대표는 귀국 후 공황, 현충원, 광주 등 안 전 의원의 방문지를 하나 하나 언급하면서 “안 전 의원이 실용중도 정당을 강조했는데, 바른미래당과 저 손학규가 그동안 지향하고 실천해온 바와 같다”며 “보수 통합, 자유한국당은 안 가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서 안심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객 30만명 유치 목표

EI 개발, 행사·홍보 대행사 선정 설 연휴 귀성객 대상 홍보활동도

전남도가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한편 관람객 3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27일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신규 EI(이벤트 정체성, Event Identity)를 개발하고, 총괄 행사 및 홍보 대행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국제행사 브랜드 가치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이포그래피(전각)를 이용한 로고와 서체에 가독성과 전통성, 세련미를 강화한 EI를 개발했다. 비엔날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최적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 비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지역·타깃별로 효율적 홍보 추진을 위해 총괄 행사 및 홍보 대행사를 2018년 비엔날레보다 4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말 선정했다.



지난해 국제수목비엔날레 1전시관(목포문예회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

특히 비엔날레의 꽃인 본 전시를 위해 전시 경험이 풍부한 큐레이터 7명을 최근 선정했다. 앞으로 전시관별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국내외 우수작가를 선정해 수목의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을 대상으로 역과 터미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전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개월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5개 나라 160여 작가가 참여해 전통성과 현대적 창조성을 융합한 다채로운 수목작품을 선보인다. 수목별빛페션쇼를 비롯한 수목영화제, AI수목 미술전, 5G아트체험 등 차세대 수목 프로그램도 운영해 국내외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